

# 우주를 이해하고 소통 위한 매개자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70>

9부 몽골·브랏트 편

## 4 사면 발렌틴

브랏트=글 오광록 기자·사진 최현배 기자



### 사면

브랏트 사면 발렌틴이 유르타 안에서 북을 높게 치켜든 채 주문을 외우고 있다.



자신의 조상들 사진을 담은 발렌틴의 목걸이. 바이칼 사면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의 모습을 모자나 목걸이 등에 새긴다.

사람을  
가만 두지  
않았다. 시베리  
아의 겨울은.  
지난 2015년 12월 26  
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는  
세상 모든 걸 날려버릴 듯 강풍이  
불었다. 하얗게 눈이 쌓여가는 대지와  
자작나무 숲은 흡사, 모두를 흘리는 마녀  
처럼 사람의 발길을 이끌었다. 등을 떠미는 바  
람보다는 넓게 펼쳐진 '광야의 마력'이 '같이 아닐  
것만 같은 곳' 시베리아를 걷고 또 걷게 했다.

그렇게 찾아간 사면 발렌틴의 '유르타' 천막을 찾자 영  
하 44℃의 찬기를 머문 바람이 손살처럼 유르타 안으로 먼저  
빨려들어갔다.

발렌틴은 신과의 만남을 위해 유르타 한가운데에 모닥불을  
지피고 있던 중이었다. 브랏트 민족의 집 유르타의 가운데 천  
정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하늘이 그대로 내다보인다. 이 구멍  
으로 신이 내려와 사면의 몸을 빌리게 된다.

불과 연기는 일종의 정화(淨化)의식을 위해 쓰인다. 더러운 몸과  
유르타 안을 깨끗하게 해 신과의 만남을 더욱 성스럽게 하기  
위한 점진 전 단계이다. 발렌틴은 북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모  
닥불 연기를 쉼 없이 쐬어 넣는 북의 영혼을 깨웠다.

어느 순간 발렌틴이 고개를 숙인 채 북을 치기 시작했다. '딩  
딩, 당-딩딩딩...' 그의 북소리가 땅을 울리면서 신을 초대하기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북소리가 커지면서 사면의 몸짓도 커졌  
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중심가에서 바이칼 알혼섬으로 가는 길  
목에는 '엘란초'란 브랏트 민족의 마을이 있다. 바이칼의 가장  
큰 섬 알혼섬을 오가는 배가 떠무르는 리스트비앙카 항구 인  
근 마을 사람들은 언제든 알혼섬을 찾아갈 수 있다. 브랏트 민  
족의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알혼섬 인근에는 여전히  
브랏트인이 흩어져 살고 있다.

이 마을에서 사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발렌틴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그의 왼손  
엄지손가락은 말 발굽처럼 갈라져 있다. 갈라진 틈을 따라 엄지손톱도 둘로 나뉘어  
마치 각기 다른 손가락이 움직이듯 꿈틀거렸다. 발렌틴은 어린 시절 유명한 사면이  
었던 할아버지가 소비에트에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면의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발렌틴은 26살이  
던 지난 1990년 사면이 됐다. 운명의 문 안으로 들어서는 발렌틴을 마을의 나이  
많은 사면이 이끌어줬다.

발렌틴은 "신은 나의 뼈와 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모든 정성을 쏟아 쉼  
신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발렌틴은 브랏트인의 앞날을 점치고, 치유하는 일을 한다. 이른바 점진 된  
뒤 사면은 영계의 세계로 접어든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모습은 목걸이와  
모자 등에 새긴다.

사면은 신과 인간의 중재자다. 브랏트인은 점진 한 사면을 통해 신의  
존재를 직접 대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본다.

이 때문에 브랏트의 사면과 우리의 무당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늘·인간·지하'를 연결해 주는 사머니즘  
미개한 과거 아닌 문화 만든 정신적 근간  
단군 신화·게세르 신화 이해하는 통로**

지난 2005년  
한국을 찾아 우리의  
무당과 교류한 발렌틴은  
"한국과 브랏트 사머니즘은 방  
식은 차이가 있지만 신과 통하는 간  
절한 마음은 같다"고 설명했다.

브랏트는 신에게 우유와 고기를 바치지만  
한국은 곡식과 과일을 준비하는 등 제의 과정은  
다르지만 점진을 통해 신을 맞는 근본은 같다.

우리가 바이칼 일대의 사머니즘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  
시아 문화 원류를 찾는데 사머니즘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브랏트인은 크게 세상을 3등분 한다. 이들의 세계관은 신이  
사는 상계(하늘), 인간이 사는 중계(땅), 조상이 묻힌 하계(지  
하)로 나뉜다. 사머니즘의 의미는 이들 세계를 연결하기 지점  
에 있다. 이들 세계는 각기 다른 공간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매개체 역할을 사면이 한다. 한국의 솟대에 등장  
하는 오리가 하늘과 땅, 지하를 연결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사면은 각기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머니즘은 고대 민족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우주와  
인간이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한다는  
세계관이 아시아 고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머니즘은 동물과 특정한 공간, 돌과 나무 등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고대종족의 술한 토데미즘으로 연계된다.

고대 민족이 특정 동물과 돌 등을 신성시하는 행위는 미개  
한 과거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정신적  
근간이었다.

바이칼 일대 사머니즘은 독수리를 신성시한다. 가장 처음  
알혼섬에 독수리가 내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바이  
칼 인근 고대 종족은 대부분 마을마다 신성시하는 동물이 있  
다. 곰과 사슴, 늑대 등 마을을 대표하는 동물을 숭배하며 우  
주와 세계를 이해하는 철학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특히 바이칼 일대의 사머니즘은 한민족의 문화 원류를 규정  
하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바이칼 일대의 사머니즘과 토데미즘은 '웅녀'가 등장하는 단군신화를  
이해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인간이 동물의 몸을 빌려 태어나거나, 특정 동물이 사람으로 변해 후손을  
낳았다는 등의 아시아 곳곳에 전해지는 탄생설화는 사머니즘·토데미즘과  
퀘를 같이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베리아의 흑한을 견디며 살아  
가는 동물의 강인한 모습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부족이 그런 동물처럼 자  
연의 위협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술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  
었다.

또 하늘을 숭배하는 사머니즘은 한민족의 단군신화와 브랏트의 게  
세르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신이나 신의 자손이 땅으  
로 내려와 악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시조가 됐다는 천신사상은 아시  
아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내는 정신적 힘이 됐다.

바이칼 일대의 사머니즘을 연구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단  
군신화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문화 원형의 뿌리를 찾는  
길이다. /kroh@kwangju.co.kr

# 소파 식탁 대전

3월 28일 까지

**홍스케이스** SINCE1990 1899-0240

30% 이상 이태리가구 전문점

www.hong79.com